

기혼취업여성의 일-가족 균형감과 지원요구에 관한 연구

정 영 금(가톨릭대학교 교수)

일-가족 균형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취업주부의 노동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오래 전부터 연구되었고 문제시되었다. 초기의 연구들은 기혼취업여성들을 중심으로 역할과중과 역할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를 연구하였다. 또 역할갈등이 가족생활이나 직장생활 등 생활만족에 주는 영향이나 역할갈등 등 관리전략 등에 관심을 두었다. 그러나 남성에게 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일은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, 또 사회적으로 많은 이점이 있어 일-가족 병행의 장점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. 즉 일과 가족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역할과중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야기하기도 하지만 일이 생활에 자극을 주고 도전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. 이러한 경향에 따라 일-가족 갈등에 대한 연구 외에 일-가족 여파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일과 가족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하며, 동시에 일-가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지원정책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.

그러나 일-가족 균형에 관한 연구에서는 기업이나 정부가 균형을 위해 지원해주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제안만 이루어졌을 뿐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 사람들이 일과 가족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적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전무한 실정이다.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-가족 갈등이나 여파를 넘어서 취업한 주부들이 일-가족의 균형감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. 또한 일-가족 균형을 위해 이들이 활용 가능한 지원책들을 얼마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파악하게 해주는 지원용이도와 지원요구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.

조사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기혼취업여성을 대상으로 2005년 4월에 실시하였으며 총 433부의 질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.

분석결과, 일-가족 균형감은 3.30으로서 중간보다 약간 높게 인식하였다. 일-가족 균형감은 연령, 첫째자녀 연령, 월평균소득, 근무시간, 기업규모, 복지제도 시행정도, 남편과 자녀의 태도, 균형전략 사용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.

지원용이성은 2.73으로서 평균보다 낮았으며 지원요구도는 4.12로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. 또 지원용이성과 지원요구도에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근무시간과 균형전략 사용정도였다.